

‘새로운 출항’ 벤투호, 내일 첫 선



4일 경기 파주 축구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서 열린 소집 훈련에서 파울루 벤투 감독이 코치진과 대화 하고 있다. 대표팀은 오는 7일 코스타리카, 11일 칠레와 평가전을 치른다.

새롭게 출항한 축구대표팀 ‘벤투호’가 코스타리카와의 평가전을 통해 첫 선을 보인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이 7일 오후 8시 경기도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32위의 북중미 강호 코스타리카와 평가전을 치른다.

2018 러시아월드컵이 끝나고 새롭게 출항한 벤투 감독 체제에서 갖는 첫 번째 실전이다.

한국은 러시아월드컵에서 FIFA 랭킹 1위 독일을 2-0으로 꺾는 이변을 연출했지만 1승2패로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스웨덴, 멕시코전에서 드러난 경기력과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으로 인해 어수선했

FIFA 랭킹 32위 강호 코스타리카와 평가전

아시안게임 금메달 8명 합류로 완전체 완성

내년 1월 아시안컵 준비...11일 칠레와 격돌

다. 월드컵 이후 처음으로 갖는 A매치라는 점과 벤투 신임 감독의 데뷔전이라는 점에서 이번 평가전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내년 1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아시안컵 준비를 위한 시작이기도 하다. 또 장기적인 큰 틀에서 벤투 감독의 운영 청사진을 엿볼 수 있는 기회다.

벤투 감독은 “벌리 내다봐야 한다. 당장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고, 이후 월드컵 예선을 무난히 통과해야 한다”면서 “그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이번엔 최대한 해볼 것이다. 짧은 시간 준

비하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출항한다는 기대감과 함께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인해 분위기가 좋다.

4일 손흥민(토트넘)을 비롯해 조현우(대구), 황의조(김해 오시카), 이승우(베르나), 황인범(아산), 김민재(전북), 김문환(부산), 황희찬(함부르크) 등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8명이 합류하면서 완전체가 됐다.

이날 훈련에서 선수들은 스트레칭과 장애물을 활용한 달리기 등으로 몸을 풀었다. 이후에는 필드 플레이를 9명씩 두 팀으로 나눠 패스 훈련을 했다. 짧은 패스 위주의 빌드업으로 공격 진영까지 넘어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귀국한 후 충분한 휴식을 갖지 못했지만 아시안게임 2연패라는 기쁨이 대표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아시안게임을 통해 벤투 감독의 시선을 사로잡은 황인범은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선수를 좋아하신다고 들었다”면서 “본인이든, 2분이든 A매치에 데뷔하는 것이 목표다. 기회가 왔을 때 가진 것을 다 보여 주면 언젠간 어시스트도 하고 골도 넣을 수 있을 것이다”고 각오를 다졌다.

선수들은 5일 오후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한 차례 더 호흡을 맞추고 6일 경기가 열린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몸을 풀 계획이다.

벤투호는 7일 코스타리카를 상대하고 장소를 수원월드컵경기장으로 옮겨 11일 남미의 강호 칠레를 상대한다.



2022년 아시안게임부터 KBO리그 중단 안한다

2022년 아시안게임부터 KBO리그가 중단되지 않는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5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고 마칠 때까지 국민들이 보내주시는 격려와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5일 회원사들과 신속하게 이번 아시안게임 야구에 대한 국민적 정서를 깊게 논의하기 시작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와 협의를 거쳐 향후 한국 야구의 수준과 국제 경쟁력 강화는 물론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KBO는 2022년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부터 아시안게임에 한해 KBO리그 정규시즌을 중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KBO는 “국가대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 함께 선발 기준과 규정을 새롭게 제정해 한국 야구의 미래를 밝게 하고, 프로와 아마추어 야구가 함께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신동열 감독이 이끄는 야구대표팀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3회 연속 금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그러나 대표팀 선발 과정부터 팬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야구팬들은 기량보다 병역 특례를 고려해 일부 선수들을 발탁한 것을 문제삼았다.

지난달 28일 아시안게임 조별예선 1차전에서 자국 프로야구도 아닌 실업팀 선수들로 구성된 대만에 1-2로 패배하면서 팬들의 비판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우여곡절 끝에 결승까지 진출해 사회인 야구 선수들로 구성된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나 팬들의 비판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다.

결국 KBO는 대표 선발 방식을 변화를 주기로 했다. 정규리그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것은 프로 무대 1군 선수 일색인 대표팀 구성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A매치 골문, 송범근이 지킨다

무릎 다친 조현우 결장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축구 2연패를 이끈 골키퍼 조현우(대구)가 부상으로 9일 A매치에 서지 못했다. 새롭게 출항하는 벤투호 데뷔전은 다음으로 미뤄졌다.

대한축구협회는 5일 “조현우가 아시안게임에서 다친 무릎으로 인해 9일 A매치 2연전에 출전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예비명단에 있던 송범근(전북)을 대체 발탁했다”고 전했다.

7일 코스타리카, 11일 칠레와의 평가전을 앞두고 출전 강행보다는



강전에서 결장했다. 이후 준결승과 결승에는 출전했다. 조현우를 대신할 송범근은 이날 오후 경기도 파주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 합류할 예정이다.

회복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것이다. 조현우는 이란과의 아시안게임 16강전에서 무릎을 다쳐 교체됐고, 우즈베키스탄과의 8강전에서 결장했다. 이후 준결승과 결승에는 출전했다. 송범근은 이날 오후 경기도 파주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 합류할 예정이다.

뉴스

박성현, 3주 연속 세계랭킹 1위 지켰다

박성현(24·KEB하나은행)이 3주 연속 세계랭킹 1위를 지켰다. 4일 발표된 롤렉스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평균 8.14점을 기록하며 1위를 유지했다.

지난달 21일 세계랭킹 1위로 복귀한 이후 3주째 1위다.

박성현이 세계랭킹 1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13일 개막하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 결과에 따라 판가를 날 전망이다. 이날 공개된 순위에서 1~5위인 박성현, 에리아 쥘타

누간(태국), 유소연(27·메디힐), 박인비(30·KB금융그룹), 렉스 토포스(미국)는 변화가 없었다.

호주동포 이민지(22)는 한 계단 올라 6위로 올라섰다. 김인경(30·한화큐셀)은 9위를 조지아 홀(잉글랜드)에게 내주며 10위로 밀렸다.

KLPGA 선수 중 가장 순위가 높은 최혜진(19·롯데)은 14위로 하락했다. LPGA투어 포틀랜드 클래식에서 최종일 뒤집기로 첫승을 따낸 미리나 알렉스(미국)는 9계단 올라 30위를 차지했다.

남자농구 허재 감독, 아들 특혜 발탁 논란 속 자진사퇴

김상식 코치가 감독대행으로 월드컵 지역예선 출전

허재 남자 농구대표팀 감독이 자진 사퇴했다.

대한민국농구협회는 5일 “허재 감독이 사의를 표명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허 감독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선수 선발 과정에서 두 아들 허웅(상무), 허훈(KT)을 선발해 논란을 불렀다.



협회는 “김상식 코치가 13일, 17일에 열리는 2019 국제농구연맹(FIBA) 월드컵 아시아 지역예선에서 감독대행을 맡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연의 숨겨진 보물 창고

■ 숲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담 구개군은 지리산은천, 칠새마을, 화연사, 설진강, 운조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물어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